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게 제24884호] 주제104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경비행기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결정체인 경비행기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부르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춘섭 동지, 리병철 동지, 조춘룡 동지, 장창하 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비행기 개발자들을 평양에 초청해 주시고 영원히 잊지 못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대양절에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하늘길은 은덕을 베풀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없는 행복을 향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새차게 뛴뛰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경비행기 개발을 직접 발기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었으며 개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키시며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를 안아오시고도 모든 영광을 자기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경비행기가 개발된것은 주체적항공공업 발전에 살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모든것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를 통하여 당이 제시한 최첨단돌파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세계와 당당히

겨울수 있는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나라의 항공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전투과업을 결사관철할 불라는 일념,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1950년대 군자리정신으로 투쟁함으로써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하였으며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데 대하여 거듭 지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이 바라는데로 여러 기종의 비행기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이 선군조선의 하늘을 뒤덮게 할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향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땡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경의의 마음을 안고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근대와 인민, 진보적인 인류의 열화같은 호모의 공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절세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전문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제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해방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3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장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로의 비약의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61차로 보내주신 2억 3 80만명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았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957년부터 오늘까지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실로 475억 6 919만 390부의 거액에 달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의 초강도 선군혁명령도로 반미최후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도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을 한시도 잊지 않고오시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었으니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은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뉘그러는 감사의 정으로 한없이 실재하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들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총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은정을 거듭 받아안은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의 민족교육을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더욱 빛내어나갈 불같은 결의로 총탄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체 교육일군대렬을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원수님과 함께 라면 온갖 시련과 난관도 영광이라는 불굴의 의지를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해외교육일군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교육사업을 제일조선인 운동의 생명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라고 하신 가르치신 대로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자랑하는 새 세대들을 총련위업의 바름,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뜻깊게 이어나가는 유능한 민족인재, 참다운 애국자로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교육지원사업을 전조직,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힘차게 벌려 학생대렬을 높이고 학교운영의 자립적태도를 튼튼히 꾸리며 민족교육의 제반 련리를 옹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결성이래 절정에 이른 일본당국의 총련탄압, 민족교육탈살책동에 단호히 맞서 전체 일군들과 동료들의 단합된 힘으로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키며 민족교육의 순결성, 합법성을 기어이 사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의 립지조건을 최대로 살려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며 민족단합사업을 강력하게 벌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문 열리는 해로 빛내이고 능동적인 대외 활동으로 총련과 민족교육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러하여 조국해방 70돐과 총련결성 6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전체 일군들과 동료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민족교육사업에서 앞장 선 사업실적을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선군조선의 심장이시고 승리의 기치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모두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며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통일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제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4(2015)년 4월 13일 일본 도쿄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전체 근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15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으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늘음과 경모의 정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없이 끊이쳤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내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장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다함없는 경의의 꽃물결이 흘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로 굳건하며 자립으로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끝없는 강성변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 세계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일조우호 소고원민의 회, 싱가포르조선교류

회와 전일본부수상 가메마루 시가족, 진달래야동기금 회상 진달래 씨파티가 14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인 굴락크 에베레 요나란

회와 전일본부수상 가메마루 시가족, 진달래야동기금 회상 진달래 씨파티가 14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인 굴락크 에베레 요나란

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다.

이에 앞서 중국 무송현 실험소 학교 성주중대와 김일문학중학교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인 굴락크 에베레 요나란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땡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캐나다 마이클 스페르보상 담소 소장 겸 백두문화교류사 사장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회세의 정치원리이시며 인류가 낳은 대성인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 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 제17차 김일성화축연에 참가하고있는 외국 손님들과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세련된 령도로 나라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와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만경대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15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만경대를 찾은 그들은 선군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건국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늘음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만경대혁명사적관에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이 땅위에 민족제생과 조국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이어 그들은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트라에 들어섰다.

유년녘은 초가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어린시절부터 이민위원의 사상과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아버지수령님과 대대로 애국, 애족, 애민의 넋을 이어오신

만경대일꾼들의 위인적공로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만경대 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전체 방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헌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으로,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헌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연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주체의 빛날로 민족의 앞길에 평평한 미래를 펼쳐주시고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들을 이끄시어 이 땅위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단체, 무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대표단들과 동료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판부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애국가로 추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태양정충의 찬가가 온 행성에 울려 퍼지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끊임없이 만발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인류정지에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시 시대와 혁명을 이끌어오신 걸출한 인민을 이끄시어 이 땅위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불패의 당과 국가, 군대를 건설하시고 이 땅위에 인민위원회의 숭고한 리념이 꽃피어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어 주체혁명명의 만민대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이 수령님,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는 태양민족의 영광을 지닐수 있었을 것이며 20세기가 반제자주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될수 있었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생하시고 수령님의 거룩하신 혁명생애와 력사는 주체년호와 더불어 오늘날에 울려 퍼지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끊임없이 만발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백두산위인들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들께서 한성도로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 갈래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망,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중앙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을 펼쳐나설수 있도록 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공평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해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김정은시대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태양을 그리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

## 다함없는 경모의 정념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따사로운 봄빛이 흐르는 내 조국 땅에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4월 15일의 봄명절이 왔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주체의 최고 성지로 달려온 전사, 제자들의 절절한 마음에 실려서인듯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문이 활짝 열렸다.

조국해방 70돐, 당창건 70돐을 맞은 이해의 태양절을 의의깊게 보내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대외되어 세차게 굽어쳐흘렀다.

오늘도 우리모두를 어서 오라 부르시는듯 햇빛같이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상.

우러르며 우러를수록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정녕 위대한 태양이시구나 하는 숭엄한 감정이 저절로 솟구쳐올라 온 광장이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이 봄계절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혁명력사가 오늘도 어떻게 흐르고있는가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뜨겁게 전해 주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변방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역사입니다.》

거대한 역사적사변들을 안고 태동하는 이해의 뜻깊은 봄명절에 활짝 열린 금수산태양궁전의 넓은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서성구역 광장 1동 10인민반에서 사는 최덕영도인이었다.

가족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린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찾은 봄의 정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4월의 봄명절이라고 늘 일바릇처럼 외워왔는데 조국해방 70돐을 맞은 이해에 여기 서고보니 정말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조국해방의 새봄이야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의 뜻깊은 4월 15일이 먼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홍분노는 웃으며 그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무릇 한해의 첫 계절로 만물에 재생의 기운을 안겨주며 찾아오는 이 땅의 봄은 새싹이 움트고 온갖 꽃들이 활짝 땅을 터치면서 한껏 향기를 풍기는 약동의 계절이라고도 할수 있다.

해방전 우리 인민에게는 그 봄이 없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의 이 계절에도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났었다. 하지만 봄의 향기를 느낄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었다.

왜놈에게 끌려가는 어린 딸자식들을 애러게 부르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설움고인눈에 어찌 꽃이 보일수 있었고 씨뿌릴 제방 한평기조차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어떻게 푸른들이 정겹게 안겨줄수 있었으랴.

하기에 한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을 빼앗겨 봄마저 빼앗겼다고 땅국노의 설움을 터치기도



하였던것이다.

불러도 불러도 오지 않던 내 조국의 봄은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의 그 봄날이 있어 신을 속히 허덕이던 이 땅에, 눈물로 얼어든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새봄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땅국의 피눈물을 뿌리던 겨레에게 우리 수령님께서 수많은 타향의 봄들을 맞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풍상고초를 겪으시며 맞고보내신 그 봄날들이 있어 해방전 화전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최덕영도인도 조국해방의 새봄과 더불어 자주적인간의 새 생활을 꽃피울수 있었고 그의 가정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한식술로 필수 있었다.

이것이 어찌 그의 한가정에만 있는 행복의 로정이라고 할수 있으랴.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봄은 정말 남다른 계절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광장을 찾은 국립교예단의 일군인 리순광동무의 이 말은 우리의 사색을 잊지 못할 봄날들에서 이물어갔다.

80여년전 4월의 봄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신것도 주제 30(1941)년의 봄날이었다. 우리 수령님을 전제 인민의 한결같은 녀름과 축원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헌수로 높이 모신것도 20여년전 봄이었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의 갈피갈피를 먼저 보아도

인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의 한평생을 수놓으신 그이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사연깊은 이 봄날에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해방후 처음으로 맞으시는 탄생일에도 나라의 예술발전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었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어느해 4월 15일에는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혁명적인 노를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아버지수령님, 언뜻듯듯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며 보시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영로인도 조국해방의 새봄과 더불어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뜻깊은 탄생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원이 받아안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잊을수 없는 사연,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외보와 장학금이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벌리신 대의 활동을 비롯하여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혁명가의 거룩한 한평생이 4월의 이 봄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날이 있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방도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고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뜻깊은 탄생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원이 받아안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잊을수 없는 사연,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외보와 장학금이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벌리신 대의 활동을 비롯하여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혁명가의 거룩한 한평생이 4월의 이 봄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날이 있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방도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고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태양의 탄생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행복의 봄, 희망의 봄이기에 인민은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태양이신 우리 장군님의 탄생일을 노래할 때에도 2월은 봄이라고 그리도 격정을 터뜨리는것이리라.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봄에 대해 생각하느라니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늘 울리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선율이 떠오릅니다.》

우리와 만난 대동강구역 청류2동 49인민반에서 사는 김만식동무의 말이였다. 가슴은 절로 뜨거워졌다.

오랜 당일군이었던 그가 전장을 도 로했듯이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강성국가의 새봄을 하루빨리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란제안 선군길에 계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행복의 봄날만을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쳐가신 선군의 자욱은 그 얼마나 뜨겁나.

이 땅에 돌아치는 모진 눈보라는 자신들께서 다 맞으시고 인민에게는 화창한 봄날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하기에 해마다 태양절이면 인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시었다.

아마도 봄은 아이들의 계절이고 학생들의 철인듯기도 하다. 그래서 봄은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을 찾은 사람들속에는 학생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류다르게 많았다.

아름다운 색동저고리를 입은 어린이들이며 우리 당의 은정이 어린 산뜻한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수없이 찾아온 여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활짝 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마치 하나의 꽃바다가 된듯싶었다.

형제산구역 신간소학교의 장원아 소년단지도원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함께 온 학생들을 우리앞에 내세웠다.

한평생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기쁨도 행복도 세 세대들의 미더운 성장속에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력사가 오늘도 어떻게 뜨겁게 흐르는가를 4월 봄명절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소중히 전하고있었다.

사연도 깊고 추억도 깊은 봄, 참으로 이 계절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인민들의 혈연적관계를 더욱 두터워 맺어준 잊을수 없는 시기였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절세의 위인들의 헌신적봉사의 숭고한 뜻이 아름답게 꽃피는 감동깊은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깃든 그 봄날들이 여기 성지의 사연깊은 공원에 아름다운 화원의 형상으로 꽃핀듯싶어 격정은 더욱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관철하는 길에서 일떠세운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깨끗한 총성으로 마련한 거대한 성과들이 광장공원의 화려한 선군길에 계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행복의 봄날만을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쳐가신 선군의 자욱은 그 얼마나 뜨겁나.

이 땅에 돌아치는 모진 눈보라는 자신들께서 다 맞으시고 인민에게는 화창한 봄날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하기에 해마다 태양절이면 인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시었다.

아마도 봄은 아이들의 계절이고 학생들의 철인듯기도 하다. 그래서 봄은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자

##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소년단원들은 김정은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소년단체대표와 평양시 학생소년들,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판계부문 일군들, 전경로명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올해를 위한 승리의 해, 혁명대경시의 해로 빛나기 위한 총동력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역세계 키워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해쳐가신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더욱 즐기치게 하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시며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소년단원들을 당만을 믿고 따르는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이르든 곳마다에 후대들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자녀라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당당한 주인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숭고한 미래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력사는 계속되고있으며 우리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더 밝고 장창한 미래가 마중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에도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리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여주시였으며 학교와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들을 찾으며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감들로 역세계 자라나고있는 이 벅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소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승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보고자는 전제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떠메고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계 자라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인단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사하였다.

일군들과 전경로명들, 공로자들이 그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어주고 소년단원증을 달아주었다.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목청껏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지영춘, 창덕학교 교장 강준호, 공훈체육인 려은희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영광스런 조선소년단의 한성원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될것을 당부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 대양절 경축 공연 진행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대양절 경축공연이 15일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청년중앙회관, 국립연극극장, 동평양대극장,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각 도 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절과 더불어 영원할 김일성민족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서장 《대양절 봄명절》, 여성 5중창 《수령님 같은신분 세상에 없습니까》 등의 작품들에서 출연자들은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걸출한 사상과 탁월한 명도로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를 격조 높게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헌신과 로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해만 가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혁명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쳐시며 정력적인 로고로 강성변영의 역년기들을 마려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애국헌신의 만단사연을 노래한 여성독창과 방창 《붉은 철령》, 녀

성독창 《내 나라 어디 가나 내 조국 어디 보나》 등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여성독창과 방창 《행복한 내 나라》, 남성독창 《풍년새가 날아온다》, 여성 4중창 《들과라라 최첨단을》, 단막극 《유령의 새벽》, 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인민의 환희》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출연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갈 억척 불변의 신념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대양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라는것을 철리로 새겨준 공원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은 나라에 혁명적사상공세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온 예술선진대원들, 기둥예술선진대원들, 예술소조원들도 경축공연무대를 펼쳤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태양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위대한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혼성중창 《우리의 큰 명절》, 여성 5중창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의 사내》, 심화시극 《영원한 태양의 열과 정이여》 등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민의 뜻을 이어 끊임없는 헌신의 초강도 강행군 길을 걸고 걸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후시조 고백을 형상한 실화이야기와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 제담 《사랑의 우리 집》을 보면서 관람

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천만군민을 한몸에 안아 위훈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살 위대한 어머니품이라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겼다.

사상적대과 뚜렷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특색있는 작품들이 무대에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날로 발전하는 대중문화예술의 면모를 절감하며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결부되고 기쁨, 흥분, 슬픔이 나는 예술선동활동과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창조된 혼성중창이야기 《비악의 노래》, 《우리가 피자》, 민중기악명창 《창성은 좋아》, 제창이야기 《청춘도시 평양으로》 등은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제인 안산블로 작품의 내용을 잘 형상한 복제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기악과 노래편곡 《철령아 새파라다》, 《바다 만 풍기》, 선곡과 복제창 《더 높이 더 빨리》, 가부 《황금산타령》은 관람자들에게 우리 당의 예술의 대승화발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새겨안도록 하였다.

공연은 합창시와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로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뒤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준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 대양절 경축 우표들이 나왔다



##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대양절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이 개선문, 평양제육관 광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무도회장들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경축분위기로 설레이는 무도회장에 《대양절을 노래하세》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변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전설적위인으로 만민이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충출결을 일으켜나갔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수령님 은덕일세》 등의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인 춤가락을 펼쳐가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명도력으로 이 땅을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백두산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차려졌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정일부의 우의조》 등의 노래 선율에 맞추어 경쾌한 춤출동을 이어나갔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변이 나는 내 나라》 등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청춘들의 기쁨이 넘쳐났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설 청년들의 불굴의 기개를 담은 《인여달라 조국여여》, 《불타는 삶을 위한 사랑해》의 노래소리가 무도회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당의 믿음을직한 최후대, 이복부대에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의지와 열정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들이 진행되었다.



- 청년 중앙 회관에서 -

##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대양절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을 모신 민족대통운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 강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백두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결의가 세차게 분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 각계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

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강성국가의 새날을 만드신 안이울 의지를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군중들은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장 70성상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 만경대고향집에 어려웠던 송고한 역사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수도 평양과 각 도의 제17차 김일성축전장과 김일성화전시회장에서는 인민의 호모심이 세차게 끓어올랐다.

관람자들은 활짝 피어난 위인 참송의 꽃들로 화홍경을 이룬 축전장과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어버이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

의 시조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였다.

수도 평양과 각지의 극장, 회관, 야외무대들에서는 인민이 부르는 열화같은 위인칭송의 노래가 4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졌다.

함흥복도예술극장과 자강도 예술극장에서는 대양절경축 도급기판예술소조종합공연들이 《영원한 태양의 노래》, 《홍도의 노래》, 《만대에 영원할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있었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태양,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못이 그리려는 도대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여성중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여성독창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는 사내》, 남성독창과 합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을 비롯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청년강계단시발전소건설장에

펼쳐진 1 000명대합창공연 《위대한 태양의 불멸의 혁명적 만대에 빛내여가리》에서 출연자들은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빈터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한 전제 건설자들의 맹세를 《애국가》, 《사랑가》,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조국보위의 노래》, 《발걸음의 우렁찬 함창》으로 터쳐냈다.

함흥고도에예술전문화교 교직원, 학생들과 신의주시 청소년학생들, 념원들의 경축공연, 대합창공연이 진행된 함흥대극장, 신의주광장 등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 살며 투쟁하는 헌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이 차려졌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는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성황을 이루었다.

함흥광장은 함흥시 념원일꾼들과 념원들, 학생소년들의

넉넉기, 바둑당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신의주, 청진, 사리원경기장들은 시대 일꾼들의 체육경기를 등으로 들쭉하였다.

뜻깊은 이날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선군조선의 후비대로 여세계 자라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갈 벼라는 맹세를 다지며 조선조선단애 일 단 하였다.

각지 금양봉사자들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이 봉사되며 명절을 맞는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대양절을 성대히 경축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 평양체육관광장에서 -

## 우리 나라 내각부총리와 로씨야 정부 부수상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로두철동지와 우리 프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동령전대대표 회담이 14일 로씨야정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성원들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동령전대사가, 상대측에서 원동발전상과 외무성, 원동발전성, 재정성 부수상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조선해방 70돐,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맞은 2015년을 친선의 해로 뜻깊게 기념하며 쌍무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 조로 친선의 해 개막행사가 14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두 나라 국가가 계양되어있었으며 조로친선관계발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에는 내각부총리 로두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동령전대사, 대사관성원들과 우리 프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동령전대표, 원동발전성, 국외 향인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들, 외무성, 운수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부수상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로씨야과학원 국동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의 친선 및 문화회조 로씨야협회, 로씨야철도주식회사, 브리크그룹 등 학계, 사회계, 기업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연

## 조로 친선의 해 개막행사 진행

방 국가가 주악되었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프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동령전대표는 오랜 친선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로씨 두 나라가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맞은 올해를 친선의 해로 정하고 개막행사를 진행하게 된것은 친선적인 로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쌍방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특사의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사이의 정치관계는 적극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이는 쌍무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로조친선의 해 행사 계획에 반영된 여러 분야의 공동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쌍무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것이라고 그는 확인하였다.

내각부총리 로두철동지는 조로 두 나라가 올해를 조로친선의 해로 정하고 개막행사를 진행하게 된것은 친선적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로 친선의 역사적부리를 마련해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마련해주신데 대해서와 오늘 조로친선협조관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부원대통령의 깊은 관심속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로씨야의 빛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중요한 열매를 맺도록 함으로써 조로친선의 해가 두 나라 친선관계역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로 장식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두 나라 외무성 부수상들이 조로친선의 해 행사계획서에

수표하였다.

행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 정부사이의 국제사동차운수에 관한 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 정부사이의 2015-2016년도 문화 및 과학협조계획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과 로씨야연방 중앙은행사이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조인되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이날 로씨야측에서는 조로친선의 해 개막행사에 즈음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부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개막행사와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이 흘러넘치는 속에서 진행되었다.

## 대양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15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로써 축하하였다.

모임에 앞서 그들은 우리 조국과 태양인민의 천만년미래를 지켜주고 담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선군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바나나국적선박 《형인》호》, 《카이쌍》호의 선장, 선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김현일 우리 나라 대동령전대사가 2일 마누에 뎀트 다 프스마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누에 뎀트 다 프스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김일성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산토메 프린시페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명도하고계시는

인 령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선방문의 날들을 회고하곤 한다.

그는 두 나라사이에는 깊고도 오랜 친선협조관계의 역사가 존재하여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

이시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조선인민이 선대수령들의 송고한 위업을 받들어 우리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분야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산토메 프린시페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자주통일업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영원무궁하리라

##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15일 저녁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 언덕과 대동강반, 반월도, 통라 다리를 비롯한 시내의 곳곳은 태양절경축의 장쾌한 축포가 터져오를 시각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차고 넘쳐났다. 군중들의 가슴마다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민족의 아버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이었다. 20시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자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터져 올라 태양절의 밤하늘을 불꽃으로 뒤덮었다. 현대조선의 새 기원이 열린 대동운의 날, 대경사의 날을 경축하는 축포성은 천지를 진감하고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축포는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운 일만경을 펼쳐었다.

항일의 눈보라만리, 전화의 불길만리를 헤치며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어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우리 조국과 인민을 지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 영웅적 인민으로 세계에 빛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었다. 황홀경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지는 불보라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인류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하고 행복할 인민으로 될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장쾌한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충천하는 화광속에 각양각색의 불보라, 꽃보라들이

경축의 밤하늘가를 명절일색으로 단장하였다. 이 세상에 다시 없을 태양복, 수령복을 누리는 천만 아들딸들의 최상최대의 행운을 노래하는 《태양절을 노래하세》,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야공을 태가르며 줄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뿔어오르고 오색명품한 불꽃들이 신비경을 펼쳐었다. 아버지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태양의 위엄을 끝까지 받아들여갈 우리 인민의 신념의 맹세가

장엄한 피성이 되어 4월의 하늘가에 꽃없이 매어리쳤다.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태양의 력사가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사는 보다 위창찬할것이라는 확신이 어 려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계를 주름잡으며 노도쳐가는 선군조선의 억세 기상이런듯 《단순예》의 노래

선율이 힘차게 울리면서 무수한 불꽃기들이 기백있으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꿰지르며 궁구 쳐올랐다. 갖가지 조화를 부리며 천변만화는 불보라들은 또 한분의 회색의 백두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해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걸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자랑스런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며 《희망찬천 나의 조국아》의 노래소리와 군중이 러친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천만민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15일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아름답게 피어난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꽃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흥高采와 지성에 떠날들러 불계롭게 피어날

김일성화를 보면서 참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셨으며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와 전시대들앞에서 오해도록 발걸음을 메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진두장들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울려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5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재미동포진국련합회 대표단, 제미동포진국련합회 대표단,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성을 기원하였으며 21세기의 선군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면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야영 시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야영이 시작되었다. 야영에는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백두산대국의 억세 기동감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야영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오늘과 찬란한 미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리여있었다. 첫기야영시작모임이 15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 앞서 야영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신호나팔소리가 광량히 울리고 야영기발이 게양되었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렷, 멋쟁이공전으로 솟아오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게 된 크나큰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야영생들은 야영기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지덕체를 겸비한 선군혁명의 억세 기동감들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별행진이 있었다. 석암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의 소년단야영소에서도 첫기야영시작모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태양절경축 연회 로씨야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태양절경축연회가 14일 로씨야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로씨야 원동발전상, 올라지미르 추로브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국가회의, 통일로씨야당, 평화 및 통일당, 자유민주당, 외무성, 국방성, 경제발전성, 운수성, 원동발전성, 비상사태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내무성 내무군구가메미야협주단, 21세기관현악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회조 로씨야협회, 과학원극동연구소, 따스통신사, 리아

노보스체통신사, 인페르팩스통신사 등 국회, 정당, 정부성, 단체, 기관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내각부총리 로두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 성원들, 김형준 로씨야주재 우리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오시어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

을 진정하고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이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천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리

## 대단결위업에 수놓아진 애국의 한생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자제로 온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을 헌입은 격정 속에 뜻깊게 맞이하였다.

해방직후 평양에 온 남녘의 기사들을 반갑게 만나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남녘동포들에게 가다듬고, 자신의 심정을 꼭 전달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제로 온 읍성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을 새치게 울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평양에 찾아온 통일애국 인사들을 만나시면 그처럼 기뻐하시며 파사로운 온정을 베풀어주시던 우리 수령님,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더 위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남녘 동포들에게 온갖 육친적인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던 수령님의 헌입이 숭고한 동포애의 정을 그들이 어찌 잊을수 있나.

그렇듯 열렬한 동포애, 민족애를 나타내시었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온 민족의 단합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기래 온 민족을 묶어 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어 더욱 강화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해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온 민족을 대단결의 기치기래 묶어세우기 위한 탁월한 명도로 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주제 61(197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어 자신께서 몸소 구상하고 무르익힌 주제적인 조국통일원칙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조국통일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이룩해야 한다고 사리정연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끓이는 격정으로 열매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그대로 조국

통일의 고귀한 원칙이고 지침이었다.

그해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온 겨레는 민족의 대단합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결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의 지론이었다. 해방직후 외세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책동을 날로 우습게하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설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신분도 우리 수령님 이시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란시기 위한 투쟁에도 온 기계를 불리일으키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었다.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간답므로 여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90년대에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적극 실현하시어 온 겨레가 통일에 국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헌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변이여 불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내외반통일세력들은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고 미쳐날뛰면서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비범한 통찰력으로 격변하는 내외의 정치정세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민족의 대단결로 반통일외의 팽풍을 밀어내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명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지도하시었다.

당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 적극 공감하며 공화국불만부를 방문하려는 열의가 높아지고있었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조국통일을 일일추로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었다. 하여 주제 78(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추진대회에서는 역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다음해 8월 15일에 관문포에서 개최할데 대해 합의되었으며 그후 북과 남, 해외 3자의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파란시켜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악랄하였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명도로 고무된 해외의 온 겨레는 서로 힘을 합쳐 거족적인 통일전선군을 형성하게 되나그처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명도와 가르치심속에 마침내 나라가 분열된 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범민족대회의 진행은 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범민족대회가 성파적으로 진행되었기 그리고 기쁘시어 주제 79(1990)년 8월 18일 대회 참가자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이 거둔 성과를 축하하시었으며 민족대단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과도 단결하려고 한다고,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기래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은 실력을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심어 세기는 그들의 가슴과마음이 수령님 이시달라로 비범한 명도로 헌입이 숭고한 덕망으로 온 민족을 단합시키시는 조

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시라는 확신이 차고넘쳤다. 그후 범민족대회 결의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며 북과 남, 해외의 공동의 사를 대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어 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더욱 튼튼히 강화되게 되었다. 정평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사의 갈피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 자욱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던 민족대단결의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에 6.15 통일시대와 같은 우리 민족기리의 새시대도 이 땅에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국통일의 위대한 기적이 민족대단결에 대하여 하신 말씀한 당부는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겨레가 금문자로 새겨안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나가야 할 고귀한 유훈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국통일은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고있는 변함없는 의의이고 신념이라고, 범민족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수 있다는것이 민족통일과 관련한 원리이고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통일전선면이 우리 민족이 생존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족이 살아나갈 길도 통일전선에 있고 민족이 부흥하고 번성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 이것이 내내 해가되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더라고 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명도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통일애국의 명도를 한몸안웃도록 높이 받들어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남 념 겨 레 가 격 찬

인류가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는 뜻깊은 태양일!

자주의 방방곡곡에서 흥미의 노래 높이 울려 퍼지고 환희의 꽃바다 끝없이 펼쳐지는 민족 최대의 이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남녘겨레는 만경대에서 시작된 절세의 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을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서울의 한 청년단체 회장은 태양절을 맞으며 가진 《경로의 밤》모임에서 4월을 4월을 맞이하느니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을 위해, 우리가 남민중을 위해 애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가슴에 사무친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태양회장은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1912년 4월 15일 평양의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어 반평생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20세기의 대성인이시이다.

주석의 탄생은 어뎀던 천하를 밝혀주는 태양의 출현이었고 시대가 맞이한 최대의 경사였다.

한 재야인사는 4월의 봄명절이 있어 민족애의 길이 열렸고 우리 겨레는 창세에 자기의 존엄을 당당히 떨치는 궁중은 민족으로 뿔수 있었다고 격조높

이 웅쳤다.

김일성주석님이 시야달로 만민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한 통일애국회 회원 김지훈과 주석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어주는것은 우리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라고 한 로동자 백일천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감동성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토록 높이 모실 일념으로부터 대구의 한리만단계 《태양력사-주체력》을 만들었고 4.15동지회는 도서 《영원한 태양》을 발행하여 독자들의 감흥을 자아냈다.

충청북도 충주, 전라남도 목포를 비롯한 남조선의 주민지주들에 배로된 민족-김일성,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 《민족의 하늘이신 김일성주석을 친린민간인 간담에 잊을수나》 등의 열서들에 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남녘의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리영숙 녀성은 주체년호속에 모든 나날이 이어지게 하고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리니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생애와 업적을 빛내게도 우리 가족만이 아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두 이끌어갈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경상남도 거창의 한 주민과 서울의 한 력사학교수는 김일성주석님을 그리는 이날민중의 마음은 온몸도 헌입이 없다,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석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통일대행정에 적극 참가하는것으로 태양절을 빛내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정계인사 양석복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태양절제정의 의미를 심장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는것은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의무가기에 황성이고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겨레의 앞길을 밝힌 위대한 태양

우리 겨레에게 민족애의 환희와 밝은 미래를 안겨준 태양절과 더불어 겨레의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며 흘러넘치는 뜨거움이었기 있다. 민족통일의 비극을 우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위업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신 어버이수령님,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조국통일을 앞당길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조국통일문건에 놓여 계시어 전할 역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헌입은 그리움의 정이다.

세상에 정지치는 닳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해빛같이 따사로운 사랑과 바다와 같이 넓은 포용력과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통일을 하나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전설적위인은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잡지는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조국해방의 위대한 뜻을 품으시고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살생 항일의 피바다를 헤치시어 나라를 찾아주시고 그 커져가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불세출의 장군 김일성주석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신 수령님이시였기에 나라의 불멸로 인한

겨레의 고를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었고 온 겨레에게 통일 민족을 안겨주시기 위해 명철날, 휴식날도 다 미루시며 홀러다 잊을수 없다.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통일정책들에 그이외 애국, 애족, 애민 의 사상과 한평생의 의지가 깃들여있다. 그이께서 민족을 위한 참사랑을 베푸시였기에 우리 겨레가 주석님을 그토록 존경하고 못 잊어 하는것이다.》

춘천에서 살고있는 한 사친에 호가는 자기의 집에 모인 자식들과 친척들에게 정소에 아버지께서 소중히 간직해온 어버이수령님의 사진 문헌을 보여 주며 《김일성주석님은 심장의 고통을 멈추는 마지못스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우리 민족사에 아니 인류역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버치다가 순직하신 그런 성인, 그런 위인이 또 어디에 있는가.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그분께서 쌓으신 업적은 조국통일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라고 자기의 정정을 적었다.

서울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운동주체의 토론회에서 력사학

교수 신광식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는 나라가 불면된 망물은 명수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수령으로 영생하시지는본은 오직 인간태양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뿐이시이다.》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정치실력, 인격과 인품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력사의 위인들보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서울에서 진행된 어느 한 토론회장에서 서울대학교의 한 대학생이 터진 격정의 목소리이다.

태양의 미소를 함께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은 심장속에 간직할 남조선의 한 주민은 《빛나는 태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한 한편의 수필에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제로 온 영생, 햇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그 영생은 불멸 태양상이다. 일찌기 열네살 어린시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았던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신 그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주석님

교수 신광식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는 나라가 불면된 망물은 명수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수령으로 영생하시지는본은 오직 인간태양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뿐이시이다.》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정치실력, 인격과 인품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력사의 위인들보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서울에서 진행된 어느 한 토론회장에서 서울대학교의 한 대학생이 터진 격정의 목소리이다.

태양의 미소를 함께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은 심장속에 간직할 남조선의 한 주민은 《빛나는 태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한 한편의 수필에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제로 온 영생, 햇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그 영생은 불멸 태양상이다. 일찌기 열네살 어린시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았던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신 그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주석님

본사기자 리호진

## 영원토록 길이 빛날 업적

이이다. 그분께서는 이인위원을 필생의 최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민족속에 계시며 민족과 그락을 같이하시며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락으로 여기시었다. 그분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 쌓으신 업적을 어찌 글이나 말로 다 표현할수 있나...》

어느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던 한성수는 《사망의 태양》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일성주석을 맞이하게 된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존함그대로 태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었다. 우리 민족이 그분을 태양으로 칭송한것은 그분의 모습에서 하늘의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빛을 보았기때문일것이다. 그분의 80평생은 인간에 대한, 민족과 인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열매였다. 우리 겨레는 불멸 세계를 이루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태양으로 칭송하고있다.》

남녘의 곳곳에서 울려나오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칭송의 목소리들마다에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을 뜻있고 그러며 태양영생의 력사를 노래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순결한 마음들이 력력히 어려웠다. 10대에 벌써 온 민족의 념원이 담긴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절세의 애국자, 분렬된 강토, 갈라진 민족을 두드러지게 만났던 위대한 수령님 조국대마음쓰시며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시리 그 길에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장그러 버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원지지도의 길에서도, 외국방문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해 절절히 하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호모의 마음안고 온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을 집전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도 이음있는 통일사절을 만날 때 더 기쁘시던 어버이수령님이었다.

하기에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자제로 온 사랑과 덕망으로 온 겨레를 따사로온 마음으로 안아 조국통일의 한 길로 이끌어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 이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는것이라.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잊혀지지만이러 고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은 지는 더욱 불타오른다. 정말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태양과 같이 한생을 빛내어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이다.》 《일본강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땅굴로의 운명애 처했을 때 우리 민족을 어느 누가 구원해주시었나. 그분은 바로 수령님의 태양이시며 자제로 온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해방의 은인인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며 그분을 민족의 태양으로, 자제로 온 어버이로 친대만세 길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며 그이를 헌입이 경모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진정의 토로이다.

절세의 위인을 경모하며 따르느것은 민족성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며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넘쳐 남녘겨레가 심장깊이 부르는 태양칭송의 노래는 우리 태양명절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넘친다.

본사기자 라설하

## 책임회피의 술책은 통할수 없다

일본의 도덕적저열성이 날이 갈수록 따라 적라하게 되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전권자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성노예들이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파피제악의 범죄성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그야말로 일본특유의 건국주의 극치기파수였다.

그의 말발은 결국 일제시대에 강행된 성노예 범죄가 정말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강행된것이기에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수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시기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적 범죄가 그때 돈거래의 흥정물이 되어 자발적으로 벗어났지만 만일 국가, 일본당국자의 발언은 전체 성노예피해자들에게 대한 모욕이고 우용주의 전인류를 경시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다. 일본전권자는 결국 인신매매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것었다.

여기에는 음흉한 계획이 숨어있다. 일본은 과거 죄악을 청산하려는 비발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본의 력사적범죄를 어떻게 해서나 아물쩍 해단해보려고 벌벌 오그만수를 다 쓰이고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세계가 경악할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가장 큰데는 물론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도 달치는대로 끌어간 침략부대의 성노예로 성노예의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제의 성노예범죄행위는 일본반동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몇 개인들에 의한 《인신매매》가 아니라 판관과 군관을 총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강행된 국가범죄이다. 1939년 당시의 내각판방정판관이자 일본군에 《위안소》설치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성노예들의 모집, 이송, 관리가 강압등에 의해 본인들의 반대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이런 일본반동은 그것을 부정하다 못해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전죄를 부리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집권자의 이 발언에 일본의 정객들이 출몰이 증명해나서고있는것이다.

흔히 범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려 하는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파피제악을 덮어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우술을 부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행위의 위헌성과 엄중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에도 일본당국은 《사위대》를 《군대》로 《결정》하는 논을 펴보았다. 세상이 다 아바라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후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그러나 현실기에 저지른 이러한 모든것을 뒤엎어 《사위대》를 전쟁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정규군으로 바꾸려 하고있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약탈의 흔적이 어디나 력력하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력사의 중전사로 남아있는 오늘날 저자들의 극악한 성노예 범죄를 되풀이하려는 일본당국의 처사에 우리 민중만이 아닌 세계가 분노하고있다. 오죽하면 상전으로 섬기는 미국까지 일본을 끝지 않은 눈으로 보고있겠는가.

미국회 하원의원 코렐리는 일본집권자가 과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때의 잔혹한 만행을 똑똑히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판관들이 력사를 몰살하려는 행위를 용납할수 없으며 특히는 정부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중결 70년이 되는 올해에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를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유린행위들중의 하나로 막안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력사적책임을 인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월이 흘러도 일본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는 결코 지워질수도 가용될수도 없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국자들이 범죄의 력사를 회피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발악할수록 일본의 철면피성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것이다.

국제사회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자국내에서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잡지 《포브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행능력강화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 북한은 가까운 내건에 주요한 지역강국으로 떠오르게 될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북조선에 대처할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결여되어있다.

조선반도에 관한 오바마의 기본정책은 남조선과의 안보동맹강화를 재확인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과 군사적대립적강화에 대해 오라스럽게 떠들수 록 핵능력을 강화하려는 북조선의 의욕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결과만을 산생시키고있다.

전문가는 맹종종식과 함께 기존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반도의 미래를 조선사람들에게 떠맡기는 정책을 선택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조선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주목되는 큰조각대 해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각국도로 침입되고있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이 오래동안 강행해온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최근년간에도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도를 암살하려고 퍼워있으며 유언안건보장사회를 내세워 주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자국내에서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잡지 《포브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행능력강화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 북한은 가까운 내건에 주요한 지역강국으로 떠오르게 될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북조선에 대처할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결여되어있다.

조선반도에 관한 오바마의 기본정책은 남조선과의 안보동맹강화를 재확인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과 군사적대립적강화에 대해 오라스럽게 떠들수 록 핵능력을 강화하려는 북조선의 의욕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결과만을 산생시키고있다.

전문가는 맹종종식과 함께 기존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반도의 미래를 조선사람들에게 떠맡기는 정책을 선택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조선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주목되는 큰조각대 해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각국도로 침입되고있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이 오래동안 강행해온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최근년간에도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도를 암살하려고 퍼워있으며 유언안건보장사회를 내세워 주권국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평화적위성발사권리와 같은 자주적권리를 강탈하려고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가.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적진을 법화하였다.

미국의 정적조선적압박과 극악한 경제봉쇄정책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에 자주와 정의 성체, 불멸의 사회주의부르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현실은 미질제책이 우리에게 대한 압박과 봉쇄수도에 환황이 되어 날뛰수록 우리는 보다 굳게 버티고 강해진다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잡이가 제압이라는 말이 그른데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법화하였다.

미국이 인정하는말은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이다.

미국에는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데 익숙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조선반도에 새롭게 조성된 전략적현황이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고있다.

미국의 《폭스 뉴스》TV방송은 《세계의 정치판관과 군사전문가들이 조선에 완전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있다. 그들이 조선이 핵무기개발계획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으로부터 이미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있는것을 인정하는것은 일의식을 바꾸었다는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하였다.

라이선문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새로운 핵무기보유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지역 미군기지를 제때로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의 핵무기보유국지위는 북남판계와 지역의 정치정세를 급변시켰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의 정책이 조선으로 하여금 로켓기술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도록 하였다것이 또한 현재 미국정체와 학계의 평가가 높았다.

오늘날에 와서까지 《신 핵포기》를 주장하는것은 현실감이 무리고 상대방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자들뿐이다.

군사를 제일로 중시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행동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오바마일당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아직도 최상의 방책이라고 고집함으로써 조선에 정치적압박을 드러내고있다. 리성을 잃으면 관변력을 잃는 법이다. 올해에만 보더라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새해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의 주요기관과 단체를, 개별적인물들을 대상으로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령명령을 발표하였다. 지어 우리 공화국을 《가장 고립되고 가장 단절되고 가장 잔혹한 독재국가》라고 헐뜯다 못해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정권은 무너질것》이라느니, 하루라도 더 버려 《북조선을 붕괴》시켜야 한다느니 뉘나 하며 극악한 악담을 마구 쉐쳐왔다.

미국이 핵무기를 위해 부르짖는 우리 겨레를 기어아 울려버리겠다는 기도를 맹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

이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는것은 천백만 정당하다.

미국이 한사코 대결을 원한다면 우리 그것을 피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공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힘장이다.

조선반도에선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화근 남조선강점 미군부대 우리의 파견에 들어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과의 본거지 미국본토도 결코 무사할수 없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군부대 발원지에서 패권을 추구하자면 그 구실로 우리 국익을 계속 해치러든다만 종양대는 미국자책의 종양이 위태롭게 될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무모하게 행사하는 힘은 쇠진해질때로 쇠진해져 이미 국한점에 도달하였다.

미국은 매는눈은 있지만 이레라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대당파적정책변환을 하여야 한다.

미국의 정책적자정들은 자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해 들지 않아야 한다.

미국으로서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략적환경과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맹종종식과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남조선과 일본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데있지만 미군부대의 목숨과 쇠진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걱정은 쇠진하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리 현 도